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공정무역 커피를 가져오다

공정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품질로

[INDEX]

- 1회 지금 왜 공정무역인가
 - 2회 커피 한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 3회 커피가 '레드오션'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 4회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공정무역 커피를 가져오다
 - 5회 성평등에 기여하는 공정무역 커피/차
 - 6회 대륙별 공정무역 커피/차 산지 비교
-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 국내에선 한 번도 함께 다뤄지지 않았던 단어들의 조합이다. 이번호에서는 국내에선 생소한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를 커피앤티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올해 초 열린 공정무역 골든컵(Fairtrade Golden Cup)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려 한다.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는 고품질의 윤리적 제품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더이상 한국 대중들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블루보틀이 국내에 진출했고, 스타벅스는 리저브(R) 매장을 늘리는 등 국내 커피 시장에서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또한 커피 구독 서비스도 등장해 더욱더 개인 맞춤형 커피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스페셜티 커피’는 지리, 기후, 생산지 등의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커피 중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A)의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등급의 원두로 만든 커피를 말한다. 그렇다면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어떠한가.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글로벌 환경, 경제, 사회적 기준을 모두 준수한 윤리적인 커피다. 앞선 회차에서 공정무역과 유기농 마크가 함께 붙을 때 글로벌 환경, 경제, 사회적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는데, 공정무역 인증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의 시너지는 말 그대로 고품질이면서도 윤리적인 제품임을 뜻한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개척하는 법

지난 2월 콜롬비아 남서부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협동조합 Federación Campesina del Cauca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이 심사한 최초의 콜롬비아 공정무역 골든컵 시상식에서 우승했다. 해당 조합의 커피는 89.64점을 기록하며 31개의 콜롬비아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이 제출한 79개 샘플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 콜롬비아 공정무역 골든컵 대회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CLAC)에 의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목표는 단순하다. 커피 농부들이 자신들이 재배하는 커피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하고, 바이어들에게 스페셜티 커피 부문에서 고품질의 공정무역 커피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회라는 형식을 통해 농부들에게 커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의 결선 진출자는 온라인 플랫폼 Beyco로 자신들의 커피가 경매





를 통해 스페셜티 커피 바이어들과 만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 경매에는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커피 로스터와 무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전 세계 공정무역 인증 커피 조합들이 스페셜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여 커피 원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자 네트워크는 교육과 협력 등을 통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다. 커피 세션뿐만 아니라, 생산, 수확, 커피 가공의 모범 사례 등을 교육받고 생산자들과 협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재배한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최고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실험실, 기술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은 소규모 커피 농민들도 지속적으로 커피 품질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 최소 25%(파운드 당 0.05 달러)를 커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Federación Campesina del Cauca 조합의 법정 대리인인 마리셀 비바스(Maricel Vivas) 씨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투자 덕에 골든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성공의 중요한 열쇠로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통한 품질 투자를 꼽았다.

공정무역 골든컵 대회: 품질 향상과 기술 활용의 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CLAC)는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들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약 2년 전부터 여러 플랫폼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첫 번째 골든컵 대회를 준비했다.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은 공





인 큐그레이더(Q-Grader) 위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샘플을 제출하고, 우수한 커피는 공정무역이 기획한 스페셜티 커피 무역 박람회의 커피 세션에 소개된다.

공정무역 골든컵 대회는 품질 향상을 위한 장려책일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커피 농민들을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올해 콜롬비아 공정무역 골든컵 시상식은 결선 진출자의 샘플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매된 첫 번째 사례다. Beyco("Beyond Coffee")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주체들을 연결해주고 거래도 가능한 곳이다. 아직 발전 단계이지만 국제공정무역기구와 Beyco는 보다 더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커피 생산자와 바이어들이 직접 관계를 맺고 경매 외부에서 골든컵 결선에 진출한 조합들의 커피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LAC의 커피 부문 매니저인 조아오 마토스(Joao Mattos) 씨는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뛰어넘어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한다.

공정무역 골든컵은 소규모 커피 조합들이 커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고, 최신 기술을 접하며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며 커피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국내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개막

국제공정무역기구는 매해 열리는 스페셜티 커피 무역 전시회들에 꾸준히 참여하며 커피 세션을 개최하고 공정무역 인증 커피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왔다. 미국과 일본에서 매해 열리는 스페셜티 커피 협회 콘퍼런스(Specialty Coffee Association conferences)와 유럽의 월드오브커피(World of Coffee), 대한민국

국의 카페쇼(Café Show)가 대표적이다.

콜롬비아 공정무역 골든 컵 시상식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온두라스에서 곧바로 제2회 공정무역 골든 컵 대회가 열렸으나 코로나 19로 외국인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CLAC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멕시코에서 온 12가지의 고품질 마이크로랏 커피 (Microlot Coffee)가 결선에 진출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산하의 한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국가사무소는 이 샘플들을 받아 커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공정무역 아프리카 사무소 역시 아프리카 내의 커피 생산국들이 모인 아프리카 최초의 공정무역 골든컵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골든컵 모델을 참고할 예정이다.

고품질과 윤리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서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는 국내 커피 산업의 떠오르는 복병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스페셜티 커피 시장과 더불어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 또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2020 콜롬비아 공정무역 골든컵에서 우수한 Federación Campesina del Cauca 조합이 생산한 커피는 현재 한국에서는 감성 인터내셔널이 취급하고 있다. 한국 맥널티는 대회에서 우수한 커피를 경매를 통해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굴지의 커피 프랜차이즈는 현재 스페셜티 커피보다 더 품질이 좋은 공정무역 마이크로랏(Microlot) 커피를 곧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국내의 공정무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막이 올랐다. *Coffee&Tea*



김빅터 과장

現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비즈니스 소싱 과장